

정치인의 발성이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 -구청장 선거를 중심으로

박덕춘
동서대학교 영상매스컴학부 교수

Effect of politician's voice on electors -Focused on ward head election

Park, Dug-Chun
Dept. of Visual Communication, Dong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정치인의 발성이 유권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실험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선거 TV연설 영상물을 대상으로 음성의 고저, 발성의 속도 등을 달리하여 조작된 4가지 영상물을 제작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치인 음성의 고저는 유권자의 신뢰도와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저음일수록 신뢰도가 높고 이러한 신뢰도는 지지도와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치인의 발성 속도도 유권자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정치인의 발성 속도가 느릴수록 유권자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러나 발성속도에 의한 신뢰도는 후보 지지도와 연결되지 않았다.

주제어 : TV연설, 발성, 호감도, 신뢰도, 지지도

Abstract This experimental research explores the effect of politician's voice on electors. For this experimental research, 4 groups of subjects composed of university students were exposed to different types of TV address video clips which were manipulated by tone and speed of voice. This research found that subjects exposed to low tone video clip of politician's address showed higher degree of affect and support. And those exposed to slower video clip of politician's address showed higher degree of affect but it is not connected to higher degree of support.

Key Words : TV address, voice, affect, trust, support.

1. 서론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정치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보다 유권자의 표심이다.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

하여 정치인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자신이 경쟁 후보보다 더 나은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서 자신의 정

Received 14 August 2013, Revised 17 September 2013
Accepted 20 Octo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Park, Dug-Chun (Dongseo University)
Email: parkdc2521@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책과 소신을 피력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선거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제한된 법적 선거운동기간 동안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더라도,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유권자의 수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미디어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유권자들에게 동시에 자신을 알리는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특히 TV토론이나 후보자 연설 등을 통한 공식적인 미디어 선거캠페인에서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시각각적 요소들을 총동원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언어적 수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35%에 불과하고 비언어적 수단이 나머지 65%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정치인들의 TV 연설이나 TV토론에서 언어 이외에도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 요소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음을 말해준다[7].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대방이 표현하는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의 내면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비언어적 메시지의 해석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준다. 비언어적 단서와 더불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소는 준언어적 단서이다.

준언어적 단서는 목소리의 질이나 발성과 관련된 것으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기존의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은 언어 커뮤니케이션 혹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에 치중하여 준언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인들이 단기간에 유권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TV연설에서 정치인들의 발성이 가져올 수 있는 준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사용자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음성학(vocalics)으로 불리기도 하는 준언어학(paralinguistics)은 단어의 언어적 내용으로부터 음성적

자극을 분리하여 실행되는 연구 분야이다.

준언어학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목소리의 질과 발성이다. 목소리의 질 영역에서는 연설의 속도, 음성의 고저, 발음의 정확성, 리듬 패턴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성(vocalization)’ 영역에서는 목소리의 크기, 부드러움과 강렬함, 음의 높낮이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3],[4],[5].

베딩하우스와 코디[2]의 실험연구에 의하면 “여성해방(Women’s Liberation)이라는 두 단어를 발음할 때, 발음하는 방식에 따라, 냉소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고무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며, 때로는 슬프게, 또는 유머러스하게도 들릴 수도 있다고 하였다. 즉 수신자가 느끼는 어감은 발신자가 사용하는 발성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낸 것이다.

사람의 발성은 그 자체로서는 구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발성이 언어적 메시지와 동반되면 감정을 생성하게 된다. 즉, 발성을 크게 또는 부드럽게 함으로써 메시지의 강렬한 정도를 나타내고, 음성의 고저와 속도, 그리고 발음을 또박 또박하게 함으로써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다.

발성관련 실험연구를 수행한 스트릿과 브래디[6]는 동일한 메시지를 발성 속도를 다르게 하였을 때, 수신자들은 중간정도 혹은 그 이상의 속도로 발성하였을 때 발신자를 더 똑똑하고, 자신감 있으며, 효율적인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발성을 빨리하는 사람들은 중간정도의 속도로 발성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느리게 발성하는 사람들은 피동적이고 유창하지 못하며, 설득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발성 속도는 성별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발성을 빨리하면 남녀 모두 유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매력적이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남성은 발성을 중간 정도의 빠르기 혹은 그 이상으로 발성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메시지에 대한 수용자의 관여도가 낮아질수록 빨리 말하는 화자가 더 설득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수용자의 관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수용자들이 메시지 그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발성 속도가 느린 화자를 더 설득

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수용자의 관여도가 낮을 경우, 말하는 속도가 정교화가능성 모델에서의 주변단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TV 미디어를 통한 준언어커뮤니케이션이나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은 수용자의 문화권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타문화권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우리 문화권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언어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커뮤니케이션 연구로 이분되어 이루어지는 동안, 준언어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는 소외되었으며, 비정치인을 대상으로 타문화권에서 이루어진 일부 준언어커뮤니케이션 연구의 결과가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준언어커뮤니케이션이 우리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그동안의 준언어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동일한 단어나도 발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즉 음성의 크기, 고저, 속도, 또박 또박한 정도 등에 따라서 수신자는 각기 다른 느낌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타문화권의 이러한 준언어커뮤니케이션 연구 결과가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정치인 음성의 고저에 따라서 유권자의 호감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정치인 음성의 고저에 따라서 유권자의 신뢰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정치인 음성의 고저에 따라서 유권자의 지지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4> 정치인 음성의 속도에 따라서 유권자의 호감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5> 정치인 음성의 속도에 따라서 유권자의 신뢰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6> 정치인 음성의 속도에 따라서 유권자의 지지도에 차이가 있는가?

3.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정치인의 TV연설에서 발성의 고저와 속도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호감도와 신뢰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유권자들의 정서가 후보 지지도와 연결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2010년 6.2 지방선거 중에서 부산지역 구청장의 TV연설 영상을 바탕으로 음성의 고저와 연설 속도를 조작하여 동일한 내용의 영상물을 각각 4가지로 제작하여, PC실습실에서 대학생들로 구성된 4개의 집단(남학생: 54, 여학생: 68)에게 노출시킨 후,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인물에 대한 호감도, 신뢰도 그리고 지지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명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은 지방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유명정치인에 대한 피험자들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사전에 통제할 상태에서, 독립변인인 음성의 고저와 발성의 스피드의 영향력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TV연설 자극에 대한 피험자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후보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신뢰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해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는가”로 물어서, 피험자의 후보에 대한 호감도, 신뢰도 그리고 지지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실험을 위한 영상물 제작은 대상이 된 후보 연설 영상물을 프리미어 프로CS4 편집 프로그램에 임포트하여 오디오 필터를 사용하여 발성의 고저를 조작하였으며, 스피드 편집 기법을 통해 발성의 속도를 조작하였다.

4. 연구결과

4.1 정치인 음성의 고저와 유권자

4.1.1 정치인 음성의 고저와 유권자의 호감도

<연구문제1> “정치인 음성의 고저에 따라서 유권자의 호감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치인 음성을 독립변인, 피험자의 호감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1> ANOVA of voice tone, affect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eta.
low tone	63	3.55	1.14	1.16	1	.28	.10
high tone	59	3.33	1.06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음성의 고저와 피험자의 호감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16, df=1, p>.05).

4.1.2 정치인 음성의 고저와 신뢰도

<연구문제2> “정치인 음성의 고저에 따라서 유권자의 신뢰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치인 음성을 독립변인, 피험자의 신뢰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2> ANOVA of voice tone, trust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eta.
low tone	63	4.04	1.09	6.87	1	.01	.23
high tone	59	3.52	1.08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음성의 고저와 피험자의 신뢰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87, df=1, p<.05).

정치인의 음성이 낮게 조작된 영상물에 노출된 피험자의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평균=4.04)는 정치인의 음성이 높게 조작된 영상물에 노출된 피험자의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평균=3.5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인 음성의 고저와 피험자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ta=0.23).

4.1.3 정치인 음성의 고저와 지지도

<연구문제3> “정치인 음성의 고저에 따라서 유권자의 지지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치인 음성을 독립변인, 피험자의 지지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3> ANOVA of voice tone, support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eta.
low tone	63	3.68	0.90	5.72	1	.018	.21
high tone	59	3.29	1.01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음성의 고저와 피험자의 지지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72, df=1, p<.05).

정치인의 음성이 낮게 조작된 영상물에 노출된 피험자의 정치인에 대한 지지도(평균=3.68)는 정치인의 음성이 높게 조작된 영상물에 노출된 피험자의 정치인에 대한 지지도(평균=3.2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인 음성의 고저와 피험자의 지지도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ta=0.21).

4.2 정치인 음성의 속도와 유권자

4.2.1 정치인 음성의 속도와 유권자의 호감도

<연구문제4> “정치인 음성의 속도에 따라서 유권자의 호감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치인 음성의 속도를 독립변인, 피험자의 호감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4> ANOVA of voice speed, affect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eta.
low speed	57	3.69	1.21	1.86	1	.17	.12
high speed	65	3.42	0.96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인 음성의 속도와 피험자의 호감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86, df=1, p>.05).

4.2.2 정치인 음성의 속도와 신뢰도

<연구문제5> “정치인 음성의 속도에 따라서 유권자의 신뢰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치인 음성의 속도를 독립변인, 피험자의 신뢰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5> ANOVA of voice speed, trust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eta.
low speed	63	3.95	1.05	6.48	1	.01	.22
high speed	59	3.45	1.12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음성의 속도와 피험자의 신뢰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48$, $df=1$, $p<.05$).

정치인의 음성이 느리게 조작된 영상물에 노출된 피험자의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평균=3.95)는 정치인의 음성이 빠르게 조작된 영상물에 노출된 피험자의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평균=3.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인 음성의 속도와 피험자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ta=0.22$).

4.2.3 정치인 음성의 속도와 지지도

<연구문제6> “정치인 음성의 속도에 따라서 유권자의 지지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치인 음성의 속도를 독립변인, 피험자의 지지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6>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6> ANOVA of voice speed, support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eta.
low speed	63	3.34	1.00	2.82	1	.09	0.15
high speed	59	3.14	0.95				

<table 6>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인 음성의 속도와 피험자의 지지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2.82$, $df=1$, $p>.05$).

5. 결론

본 연구는 TV연설에서 정치인의 발성이 유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실험연구이다. 그동안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언어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커뮤니케이션 연구로 양분되어 이루어졌으며, 준언어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며, 해외 연구자들의 비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에서는 발

신자 음성의 크기, 고저, 속도, 또박 또박한 정도 등이 수신자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준언어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들은 문화권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국내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의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6.2 지방선거 TV연설 영상물을 대상으로 음성의 고저, 발성의 속도 등을 달리 하여 조작된 4가지 영상물을 제작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치인 음성의 고저는 유권자의 신뢰도와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저음일수록 신뢰도가 높고 이러한 신뢰도는 지지도와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치인의 발성 속도도 유권자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정치인의 발성 속도가 느릴수록 유권자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발성속도에 의한 유권자의 신뢰도는 후보 지지도와 연결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TV 수상기를 통해 정치인의 연설을 시청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실험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시청하게 하였으며,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였다는 점에서 인구통계학적 속성상 전체 유권자인 모집단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실험연구의 결과를 실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전반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언어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커뮤니케이션 연구로 양분되어 수행되고 있는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환경 속에서, 실험을 통해 정치인 음성의 고저와 발성의 속도가 유권자의 정서와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REFERENCES

- [1] Addington, D. W., "The effect of vocal variations on ratings of source credibility." *Speech Monographs* 38: 242-247, 1971.
- [2] Bettinghaus, E. P., & Cody, M. J., *Persuasive communication*(4th ed.). New York: Harcourt., 1987.
- [3] Miller, G. R., & Hewgill, M. A., "The effect of

- Variations in Nonfluencies in Audience Ratings of Source Credibility." *Quarterly Journal of Speech* 50: 36-4, 1964.
- [4] Pearce, W. B. & Conklin, F, "Nonverbal vocalic communication and perceptions of a speaker.: *Communication Monographs* 38: 235-241, 1971.
- [5] Scherer, K. R., & London, H., & Wolf, J. J., "The Voice of Confidence: Paralinguistic Cues and Audience Evalu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7: 31-44, 1973.
- [6] Street, R. I., & Brady, R. M., "Speech rate acceptance ranges as a function of evaluative domain, listener speech rate and communication context.: *Communication Monographs* 49: 290-308, 1982.
- [7] Y. S., Kim,, *Persuasion Communication*, Nanam Publishing co., 2005,

박 덕 춘(Park, Dug-Chun)



- 1987년 2월 : 경북대학교 공학사
- 2001년 2월 : 중앙대학교 언론학 석사
- 2010년 8월 : 경북대학교 언론학 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동서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방송 영상

· E-Mail : parkdc2521@hanmail.net